

자료제공 : 2017. 05. 27.(토)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정 환 중	02-2133-3510
대기관리과장	정 미 선	02-2133-3630
환경협력팀장	박 숙 희	02-2133-3512
대기정책팀장	이 병 철	02-2133-3632
담 당 자	이 소 연 박 동 순	02-2133-3516 02-2133-3633
관련 홈페이지	http://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2매

각계각층서 온 3천시민 국내 최대 원탁토론회서 미세먼지 해법 찾아

- 박원순 시장, 시민 제안의견 중 당장 시행 가능한 '5대 실천약속' 현장서 발표
 - 미세먼지 '재난' 규정, 영·유아 등 '초미세먼지 민감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보급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자동차 2부제 확산 위해 대중교통 무료운행 추진
 -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 하위등급 차량 단속 규제
 - 10월 동북아 4개국 수도 시장포럼 서울서 개최,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설립 추진
- 시민들이 스스로 해답 찾는 광장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힘 다시 확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3,000명의 원탁토론회가 각계각층에서 찾아 온 시민들의 힘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어마어마한 규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해법이라는 실질적인 수확까지 거둔 성공적 행사였다.

□ 서울시가 5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낮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17시부터 2시간동안 쉬지 않고 총 2,080개의 의견을 쏟아내며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첫 걸음에 앞장섰다.

- 30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 가운데 사전 조사를 한 결과 여성 비율은 약 54.5%로 남성(45.5%)보다 높았다.
 -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1위인 10대(23.7%)에 이어 40대(18.3%)가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40대 참가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걱정을 엿볼 수 있었다.
 - 이들은 10대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광화문을 찾았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갖는 문제의식의 크기도 주목할 만했다.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60대 이상 참가자도 간혹 눈에 띄었다.

- 이날 행사에 참가한 월촌초등학교 정하늬 학생은 ‘하늘이 슬픈 이유’라는 시로 마음을 움직였고, 이형탁 씨는 “노후 경유차 엔진을 친환경 LNG, LPG, 수소연료 전기차로 모두 교환해 조기 폐차나 DPF(매연저감장치)만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리라초등학교 유희원 학생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남 탓 하지 말자”는 말로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행사를 찾아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청장들도 여럿 참석해 각자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 1차 토론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 김제동의 진행 속에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10대 청소년부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환경미화원, 어린이집 원장 등 각계 시민이 250여 개 테이블별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민 제안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 유해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유차는 관리하는 방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이밖에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 관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이 주요 제안으로 떠올랐다.
 -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놓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이외에 녹색투자 이민제, 버스 천장 텃밭 꾸미기, 지하철 산소열차 운행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시민들의 특특 튀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
- 사전 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44%)을 꼽았다. 2위로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24%)이 지적됐다.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28%의 시민이 역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도시들과의 도시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다음인 22%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 2차 토론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뤘다. 논란이 예상됐던 쟁점인 미세먼지 심각한 날 차량 2부제 시행, 서울 도심 내(4대

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논의했고, 현장 투표도 실시했다.

- 그 결과 2부제에 있어서는 참가자의 80.1가 긍정의견, 7.0%가 반대의견이었다.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는 79.3%가 찬성의견, 6.5%가 반대의견을 냈다.

- 박원순 시장은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5대 실천약속'을 이날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 서울시민대토론회 주요 시민제안 사례 '17.5.27 〉

- 10대 어린이 정○○ 건설현장 날림먼지 발생시키는 건설현장, 공사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
- 20대 대학생 박○○ 환경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상황으로 봐야함
- 30대 개인사업자 심○○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도입
- 30대 주부 이○○ 취약계층 영유아 행복추구권 위협문제로 영유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 50대 회사원 박○○ 차량 운행제한 - 시범적으로 서울시청 중심반경 내 디젤차량 통행금지 후 확대
- 50대 교수 이○○ 화석에너지 제로 건축물 확대 보급,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사업 의무화
- 30대 회사원 김○○ 고농도의 치명적 미세먼지는 중국과의 환경협약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 첫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고,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 무료 보급,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 둘째,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한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지역(서울·경기·인천)이 모두 발령 조건에 해당돼야 동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맹점을 개선한 것.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구 산하 공용주차장은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 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2부제 시행을 강제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추진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는 협약을 맺어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mu\text{g}/\text{m}^3$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mu\text{g}/\text{m}^3$ 초과) 이상

- 셋째, 시가 ‘12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노후경유차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공해유발차량의 서울도심(4대문 안) 운행제한도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파리, 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국제 자동차환경등급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 넷째,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 건설기계의 경우, 기존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반드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신형엔진으로 교체해야 서울시 공사장에 투입될 수 있다.
 - 친환경 보일러의 경우, 본청 및 산하기관과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가정의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다섯째, 동북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주요 도시들과의 환경 외교를 강화한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동북아 4개 도시(서울-베이징-도쿄-울란토르) 시장포럼을 개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 이밖에도 시민 의견 가운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기' '미세먼지 정부 기준 강화' '환경세 도입'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 등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야외토론 행사였

다. 미국에서 아메리카스픽스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4300명이 모인 토론을 개최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처럼 큰 야외토론은 처음이다.

- 박원순 시장은 “최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시민 손으로 직접 마련하는 대토론회 현장에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광장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했다”며 “대토론회에서 시민 여러분이 준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인 대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온라인 신청자 사전 시민인식조사 결과

온라인 신청자 사전 시민인식조사 결과

[사전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내용 : 서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인식 및 대응 방안 심층 조사
- 조사기간 : 2017년 5월 11일 - 5월 20일
- 조사방법 : 참가자 대상 문자설문조사
- 분석방법 : 개별 의견 상향식 구조화* 및 키워드 추출
- 조사 및 분석 기관 : 코리아스픽스

* 개방형 조사와 상향식 구조화

개방형 조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관식 조사를 말하며 해당 의제의 세부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코리아스픽스 분석팀은 각각의 응답에 대한 개별 가치를 도출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키워드들은 유사한 테마끼리 묶어 상향식으로 구조화한 뒤 토론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1. 응답자 인구 통계

1. ○○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성별	빈도	비율
①여성	238	63%
②남성	142	37%
합계	380명	100%

2. ○○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대	빈도	비율
①10대	14	4%
②20대	106	28%
③30대	100	26%
④40대	112	29%
⑤50대	35	9%
⑥60세 이상	13	3%
합계	380명	100%

3. ○○님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는 어디십니까?

거주지 또는 근무지	빈도	비율
①서울시	272	72%
②인천/경기	90	24%
③기타 지역	18	5%
합계	380명	100%

3-1. 거주지 또는 근무지는 서울시 무슨 구입니까?

거주지 또는 근무지	빈도	비율
1. 종로구	11	4%
2. 중구	11	4%
3. 용산구	8	3%
4. 성동구	6	2%
5. 광진구	9	3%
6. 동대문구	14	5%
7. 중랑구	12	4%
8. 성북구	16	6%
9. 강북구	6	2%
10. 도봉구	4	1%
11. 노원구	9	3%
12. 은평구	6	2%
13. 서대문구	18	7%
14. 마포구	16	6%
15. 양천구	9	3%
16. 강서구	9	3%
17. 구로구	29	11%
18. 금천구	2	1%
19. 영등포구	9	3%
20. 동작구	11	4%
21. 관악구	10	4%
22. 서초구	10	4%
23. 강남구	16	6%
24. 송파구	12	4%
25. 강동구	8	3%
합계	271 명	100%

4. 현재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	빈도	비율
①전문직 / 관리직	75	20%
②사무직 / 전문기술직	93	24%
③판매직 / 영업직 / 서비스직	18	5%
④기술직 / 기능직 / 노무직	13	3%
⑤전업주부	52	14%
⑥자영업	16	4%
⑦학생	82	22%
⑧무직 / 퇴직 / 구직 중	25	7%
⑨기타	6	2%
합계	380 명	100%

5. 선생님께서는 1 달에 1 번 이상 직접 운전을 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①예	156	41%
②아니오	224	59%
합계	380 명	100%

2. 인식조사

6. 최근 미세 먼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수준	빈도	비율
①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80	74%
②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수준이다	94	25%
③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5	1%
④전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	1	0%
합계	380 명	100%

7. 최근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환경이 나빠지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대기 환경이 나빠지는 원인	빈도	비율
①중국 등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	334	44%
②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186	24%
③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173	23%
④도로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43	6%
⑤공장이나 가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17	2%
⑥기타	7	1%
합계	760 개	100%

8. 최근 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앙정부의 노력	빈도	비율
①매우 노력하고 있다	33	9%
②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125	33%
③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167	44%
④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55	14%
합계	380 명	100%

9. 미세 먼지 발생 억제 및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중앙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빈도	비율
①중국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276	36%
②선진국 수준의 대기 오염 경보·예보 강화	90	12%
③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단 등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155	20%
④차량 2부제 등 전국단위의 차량 수요관리	38	5%
⑤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 등 규제 강화	45	6%
⑥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 확대	47	6%
⑦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92	12%
⑧기타	17	2%
합계	760 개	100%

10.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	빈도	비율
①가까운 곳은 걸거나 자전거를 탄다	135	18%
②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한다	196	26%
③일회용품 사용 자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을 실천한다	155	20%
④자동차 운전시 급출발·급정거·공회전 등을 자제한다	52	7%
⑤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이용한다	81	11%
⑥공기정화식물을 키운다	25	3%
⑦먼지 발생 공사장, 매연차량 등을 적극 신고한다	97	13%
⑧기타	19	3%
합계	760 개	100%

11. 최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의 노력	빈도	비율
①매우 노력하고 있다	45	12%
②약간 노력하는 편이다	184	48%
③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128	34%
④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23	6%
합계	380 명	100%

12. 미세먼지 발생 억제 및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빈도	비율
①중국 주요도시들과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외교 노력 강화	213	28%
②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165	22%
③대도시인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102	13%
④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강화	134	18%
⑤혼잡통행료, 차량 2부제 등 차량 수요관리	63	8%
⑥대형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추진	18	2%
⑦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 등 안전물품 지원	45	6%
⑧기타	20	3%
합계	760 개	100%

13.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기여도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대책 중 더 강화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대책 중 더 강화해야 할 일	빈도	비율
①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조기폐차 지원)	98	26%
②수도권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	46	12%
③전국 노후경유차의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12	3%
④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37	10%
⑤혼잡통행료 징수	9	2%
⑥매연 발생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강화	89	23%
⑦주요 도로에 대한 분진 청소 및 물청소 확대	38	10%
⑧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46	12%
⑨기타	5	1%
합계	380 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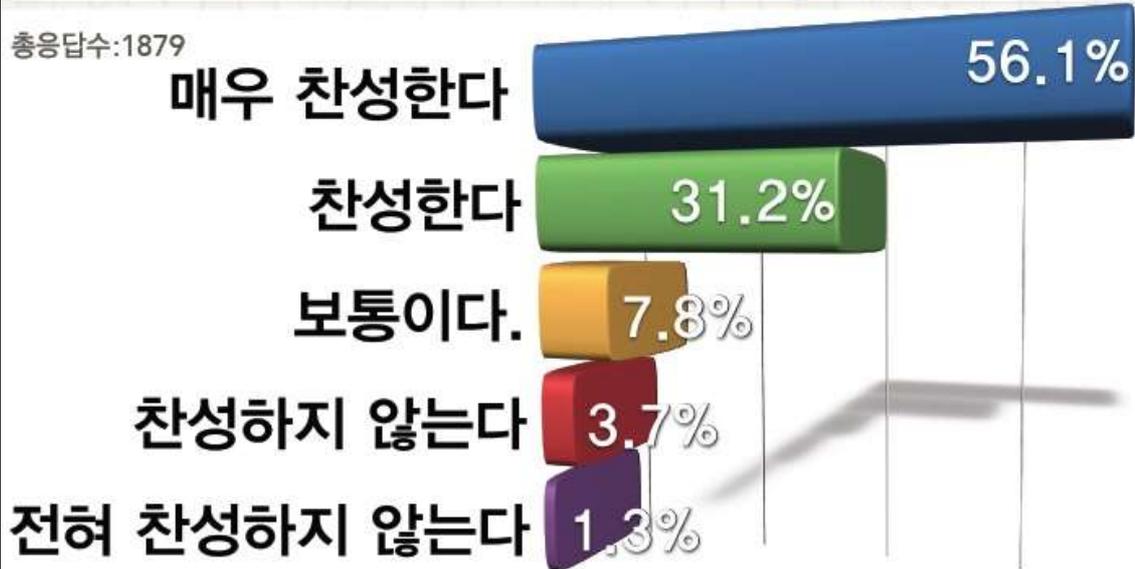
14. 위 정책 외에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새로이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 정책외에 교통부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일	빈도	비율
①차량 2부제 등 자동차 부제 운영을 통한 차량 수요 관리	82	22%
②미세먼지가 심한 고농도시 차량 2부제 의무화	89	23%
③수도권에서 실시중인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118	31%
④자동차 환경등급제를 통한 도심(한양도성)내 차량 진입 제한	60	16%
⑤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7	2%
⑥기타	24	6%
합계	380 명	100%

광화문광장 주요안건 투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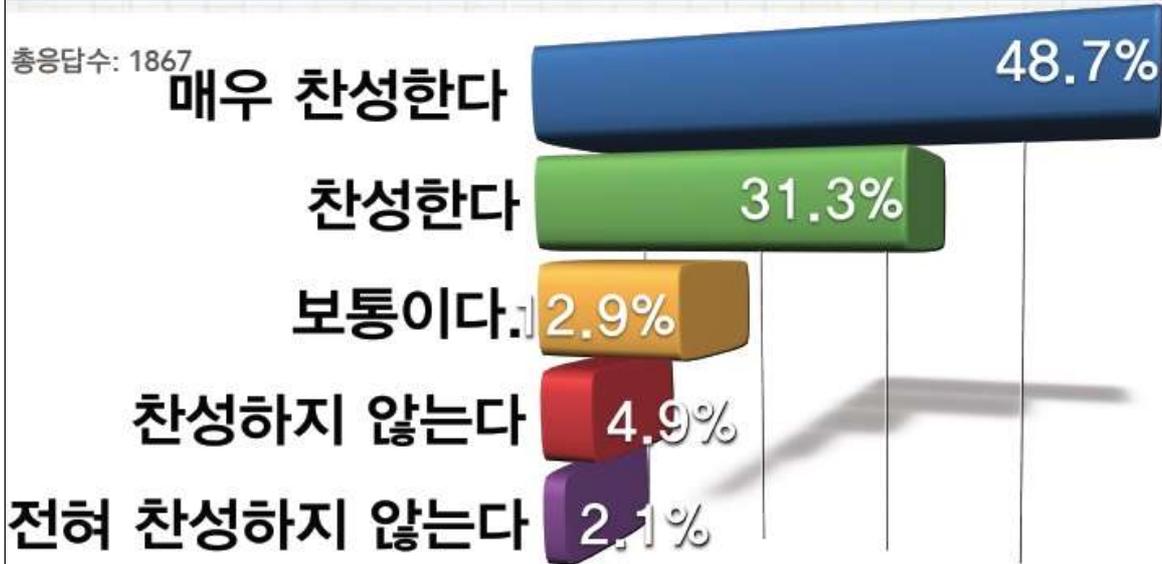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 중단 찬반여부

총응답수: 1879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 찬반 투표

총응답수: 1867



도심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 찬반 투표

총응답수: 1856



환경적 가치가 시민적 편익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찬반 투표

총응답수: 1850

